

5-26-2024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로마서 1:16

말씀제목: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영광스런 첫째 부활(휴거)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함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세상 교육을 통해서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천 년 전에 사탄 마귀가 세상에 죄를 가져온 후 지금까지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여 속여왔습니다.

사탄 마귀는 왜 사람이 죽어야 하고 그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히 9:27)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로 인해 마음 속에 온갖 죄악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위선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막 7:20-23)

이러한 모든 악한 죄들이 자신의 마음 속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 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찢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히 4:12)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죄악들이 나타날 때마다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을 살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이라 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며 (롬 6: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롬 3:23)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할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고전 15:1-5)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이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대로”란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라는 말은 “내 죄로 인하여”라고 굳게 믿고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끝까지 마음 속에 의심하지 말고 항상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않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어떻게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는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하여: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엡 1:7)…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골 1:14)…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골 1:20)…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3-14)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일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멸미암은 것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마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전 15:19-24)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말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고전 15:36-38)

마찬가지로 사람도 씨처럼 땅에 묻혀 썩은 후에 부활할 수 없다면 것처럼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키지며 수척로 심겨져 영광된 것으로 일으키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키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키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고전 15:42-44)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모든 죄들이 용서되고 제거된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죽어 성령의 능력을 통해 부활하여 영적인 몸을 입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몸으로 나타나게 되는 일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하늘에 속한 형상도 입으리라.”(고전 15:45-49)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여 휴거될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요일 3:2-3)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되는 소망이 있을지라도 그 영광이 각자 다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고전 15:39-42a)

선지자 다니엘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되는 일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단 12:3) 아멘! 할렐루야!